

지멘스(주)  
& 슈나이더  
일렉트릭(주)

## ‘제조업의 미래’ 이끌 스마트 공장 솔루션 선보여



지멘스(주)의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전시 현장.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IoT 운영 시스템 '마인드스피어(MindSphere)'를 선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진행된 본 전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공장 및 자동 제어 전문 행사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29회를 맞은 국제공장자동화전(aimex), 제7회 한국머신비전산업전(Korea Vision Show), 제4회 스마트공장엑스포 등 3개 전시가 동시 개최되며, 국내외 500여 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 지멘스(주), 미래공장 혁신 솔루션 대거 선보여

디지털화 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전기전

자 기업 지멘스의 한국법인 지멘스(주)(대표이사·회장 김종갑, [www.siemens.co.kr](http://www.siemens.co.kr))는 올해 '미래공장' 디지털 엔터프라이즈(Digital Enterprise)를 구현하는 다양한 혁신 솔루션을 제조업 분야별로 실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고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체험형 전시를 통해 이 자리에서 스마트공장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최대 규모인 360㎡ 단독 부스(3층 C홀 H160번)에 로 참가하는 지멘스(주)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지금 시행하라(Digital Enterprise-Implement Now)'를 주제로 이산·조립산업(Discrete Industry), 공정산업(Process Industry) 등 제조업 분야에 따른 고객 맞춤형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선보



지멘스(株)의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전시 현장. 이산·조립산업(Discrete Industry), 공정산업(Process Industry) 등 각기 다른 제조 분야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선보였다. 웨스토(FESTO)와 공동 개발한 스마트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동하는 모습.



지멘스(株)의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전시 현장.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 지금 시행하라(Digital Enterprise - Implement Now)'를 주제로 선보인 공정산업 분야의 VR 체험존.

였다. 이산·조립산업 분야에서는 웨스토와 공동 개발한 스마트 컨베이어 시스템(Multi-carrier System : MCS)을 함께 전시하고, 공정산업 분야에서는 VR 체험존을 마련하는 등 다채롭게 부스를 구성했다. 또한, 지난해 한국 시장에 첫 선을 보였던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IoT 운영 시스템 '마인드스피어(MindSphere)'는 더욱 다양해진 기능을 선보였다. 지멘스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인드스피어 최신 버전을 클라우드 시장 1위인 아마존웹서비스에서 호스팅 되도록 상호 연동하여 보다 높은 부가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지멘스(株) 디지털팩토리 사업본부와 공정산업 및 드라이브 사업본부를 총괄하는 디터 슈레터러(Dieter Schletterer) 부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이산·조립산업과 공정산업 등 두 가지 산업 분야에 지멘스의 혁신적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한 실제 적용 사례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면서, "또한 마인드스피어와 장비들이 얼마나 쉽게 연결되며 어떤

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생성하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슈레터러 부사장은 지난 3월 30일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내 행사인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 Changes Everything)'를 주제로 디지털화가 각 산업군에서 창출할 기회를 제시하였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는 지멘스(株)를 포함한 스마트공장 대표 기업 5개사의 전시장 투어에 참여해 제조업 디지털화의 성공 사례를 직접 경험하였다.

### 슈나이더 일렉트릭, 스마트공장추진단과 업무협약 체결도 진행

공정 최적화 및 자동화 전문 소프트웨어(SW) 기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가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 참가했다.

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코리아(<http://www.schneider-eletric.co.kr>, 한국 지사 대표 김경록)는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mart Factory+Automation World)'에 참가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는 제조업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산업용 소프트웨어 통합 관리 시스템인 시스템 플랫폼(System Platform)과 함께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감시 및 모바일 모니터링의 기술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함께 참가하여 5대 공정 작업 중 하나인 조립부문도 전시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플랫폼(System Platform Powered by Wonderware)'은 감시, SCADA, HMI, IIoT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세계 유일의 확장 가능한 반응형 플랫폼이다. 협업과 표준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운영 개선과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모든 시설 전반의 인력, 프로세스, 자산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플랫폼을 데모 부스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28일 민관합동 스마

트공장추진단과 '멤버십 참여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도 진행됐다. 스마트공장추진단 박진우 단장, 송병훈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슈나이더 일렉트릭을 포함한 총 13개 기업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아태지역 박태상 부사장이 대표로 참석, 스마트 제조 혁신의 비전을 공유했다.

박태상 부사장은 "이번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필요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의 리더십을 소개하는 자리다.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의 제품군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비전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산업용 소프트웨어와 영국 산업용 소프트웨어 상장기업 아비바(AVEVA)를 인수하여 '아비바'로 사명을 변경, 새롭게 도약한다. 향후 엔지니어링 및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이끄는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굳게 자리매김할 것이다.